

# 發明獎勵事業의 어제와 오늘

沈 昇 澤

〈發明人, 前科振財團專務〉

## 1. 發明獎勵事業의 沿革

우리나라에 있어서 發明思想普及運動의 필요성이 着想되기 시작한 것은 약 60年前인 1924~1928年代라고 볼 수 있겠다.

日本の 侵略이 가져다준 怨限이 날로 濃縮되어 1919年 3月 1日 마침내는 萬歲運動으로 불붙기 시작하자 日本人들의 政治彈壓은 더욱 가혹해지고 있었을 때 뜻있는 人士들은 우리 民族의 살길은 科學知識의 啓蒙과 發明思想을 鼓吹시키는 일만이 生産性있는 길로 나서는 일이라 믿어졌기 때문이다.

民族的인 科學知識普及으로 命脈을 이끌고 나아가서는 產業發展에 寄與하기 위한 國民的인 이 運動은 1928年 12月 7日 高麗發明協會의 發起總會를 갖기에 이르러 하나의 民族運動色彩를 나타내기도 했다.

當時 이 사실을 보도한 1928年 12月 9日 東亞日報 기사를 참고자료로 옮겨보면 「현재 朝鮮人社會로서 發明家를 위하여 科學을 根據로 한 合理的 指導機關이 필요함을 느낀 바 있어 얼마 전부터 有志 몇사람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하여 오던바 지난 7日 오후 7시에 京城 시내 慶雲洞 朝鮮物產獎勵會館 안에서 高麗發明協會發起會를 吳華英씨 사회로 의사를 進行한 바 금일 朝鮮人本意의 發明家를 위한 모임은 이번이 처음이니 만큼 일반의 興味를 끌을 것은 물론이며 모든 發明家에 대한 基礎知識을 지도할만한 기관일 것이며 準備委員이 提請한 規約을 통과하고 밤

10시경에 無事閉會한 바 發起人은 吳華英씨 외에 20인이요, 創立總會準備委員으로 8人을 選舉하였더라」

그러니까 高麗發明協會가 정식으로 깃발을 올린 것은 1928年 12月 21日 朝鮮日報社 2層會議室에서 朝鮮物產獎勵會 明濟世씨 사회로 幕을 연 때부터라 하겠다.

갈수록 活氣를 띠우기 시작한 高麗發明協會는 大衆啓蒙事業을 시작, 1929年 1月 25日 天道教記念館에서 宣傳大講演會를 열어 크게 관심을 끌은 일이 있었는데 당시의 演題와 演士는 劉斗燦씨의 「發明의 偉力」과 李萬珪씨의 「發明의 曙光」이었다.

이協會는 發明思想普及運動으로 파고들면서 1930年 3月 21日 益善洞에 있는 회관에서 2周年記念式을 갖고 보다 실질적인 사업으로 發明家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손대기로 했으나 그후 財政難으로 해서 스스로 그 존재가 사라진 것 같다.

실상 高麗發明協會가 발족하기에 앞서 科學圖書, 雜誌出版과 特許手續指導相談 등을 목적으로 1924年 8월 朴吉龍, 尹城淳, 裋相彥, 朴璋烈, 崔穀昌, 許楨煥씨들이 京城市內 長沙洞 83에 있는 東洋染織株式會社 안에서 發明學會를 發起하고 그해 10月 1日 같은 장소에서 成漢錫씨 사회로 創立總會를 열어 初代理事長에 朴吉龍(建築設計家), 專務理事에 金容權(窯業研究家), 劉銓(工學士)씨로 陣容을 갖추었다.

큰 뜻을 품었던 團體들은 그 당시의 社會的 環境의 興件과 財政的 여건으로 해서 출발당초

## ◎ 發明環境의 再照明.....

의 뜻을 마음껏 발휘하기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않을 수 없었다.

韓國人の 科學發展내지는 産業技術의 底力을 이룩해야겠다는 큰 뜻의 發明學會는 그나마 주머니 돈을 털어 창립된지 얼마 못가고 9년이란 오랫동안 친목에 잠겨 오던중 1933年 6月쯤에야 2代 理事長에 李仁(辯護士·辨理士)씨가 들어서서 부터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宋鎮禹, 金性洙, 方應謨, 呂運亨, 李鍾麟, 朴興植, 金知泰씨를 비롯해서 뜻있는 人士들이 支援하고 나섰다.

發明獎勵의 緊要性을 大衆啓蒙運動으로 作用시키 보려는 事業은 發明學會가 중심을 이루는 朝鮮科學知識普及會(會長 尹致昊, 副會長 李仁, 顧問 金性洙, 呂運亨)가 制定한 「科學의 날」로 간주할 수가 있다.

그날을 택한 것은 그 당시의 政治的인 여건이 韓國人 科學者나 發明家의 優越性을 내세울 수 없어 할 수 없이 「차알스 다윈」(1809~1882)이 사망한 4月 19日을 追慕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당시의 일본 總署府施政은 한국사람들이 물리는 일체의 集會도 容認하려 하지 않았으며 要視察人物의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행동감시를 펴오던 시절이다.

모든 團體活動을 억제당하던 때인지라 부득이 非政治的 活動으로 피어나가는 수단은 자연 物產獎勵運動, 農村振興運動, 迷信打破運動, 禁酒運動, 文盲退治運動, 發明獎勵運動 따위로 번져갈 수밖에 안 된 길은 몹시 어려웠다.

그러나 發明獎勵事業도 社內的인 技術的 能力과 보다 넓고 깊은 組織的 活動을 피하려 했으나 財政的 발판의 幼弱性으로 해서 결국 會員들을 상대로 하는 特許手續의 代理業務에 주력하면서 1933年 6月 10日 46倍版 31面의 「科學朝鮮」이란 月刊雜誌를 처음 發刊하면서 명맥을 이어갔다.

發明獎勵事業은 朝鮮總署府에서도 着想하고 있었다. 1924年 7月 10日 그들의 商工課가 발표한 發明獎勵事業의 構想은 發明學會活動을 가로질러가는 구실을 했으며 本軌道를 摸索해 보았다고 하겠다.

發明家들을 援助하고 特許法과 學術的 解釋을 위주로 첫거름의 發明家나 뜨내기 發明家들을 상대로 하는 동안 매일 5~6명, 적어도 3명의 저나름대로의 발명을 들고 오는 이들을 상대로 하려면 별수없이 發明協會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한데 動機를 두고있었다.

그럴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들 相談을 해오는 發明家들의 80%는 일본사람, 20%는 한국사람인데다가 相談內容의 60%가 機械類, 40%가 化學的 製造方法이며 대개는 한두차례 特許出願을 경험해 보았거나 拒絕당한 경험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면 굳색한 發明家, 虛構性이 짙은 發明內容이 多數였던 것이다.

이들을 行政機關에서 처리해 나가기에 불가능함을 깨달은 그들은 결국 日本에서 터전을 닦아온 帝國發明協會(現在의 日本發明協會)를 본따 보자는데 있었다.

이렇게 해서 發明獎勵補助金, 見本試作費, 優秀發明의 表彰, 講演會, 展示會 開催등을 내걸고 규모있는 朝鮮發明 및 獎勵展示會와 兒童生徒 創案品展示會를 열어 關心을 끌었다.

發明學會가 機關誌 「科學朝鮮」을 통해 發明意識을 啓蒙하면서 이끌어오던 特殊雜誌는 創刊 1年인 34年 6月 일단 休刊해야만 했고 1935年 2月 姊妹機關인 朝鮮科學知識普及會(會長 元翊常)가 200여명의 會員組織을 맡아 8.15 解放때까지 이어 오다가 繼承없이 흩어지고 말았다.

1945年 8月 15日을 기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으며 發明獎勵事業界도 例外가 될 수는 없었다.

發明的인 思考에서 우리나라는 創意性의 昂揚과 發明의 獎勵保護에 뒤따라나서야 할 實用化(企業化)를 모색하며 科學技術振興을 목적으로 1947年 12月 27日 軍政廳商務部를 맥그라운드로 하는 官民共同體의 朝鮮發明獎勵會(理事長 吳楨洙 商務部長) 創立을 보았다.

못처럼의 發明獎勵團體가 發足된지 1年이 못되어 6.25動亂을 피해 잠시 釜山으로 옮겨서 再收拾의 과정을 겪으면서 1953年 4月 17~18日 發明品展示會와 優良商標展示會를 갖는 등 熱意를 보이다가 다시 서울로 되돌아온 協會는 전편

적인 改革을 보았지만 순수한 發明家들 손으로 넘겨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되자 看板의 名義마저 바꾸어야만 했다.

難航의 길은 다시 시발점을 이루어 1956年 9月 10日 臨時總會를 거쳐 韓國發明協會(會長 周利會)로 改稱, 약 9년동안 深刻한 混亂期를 겪어 내려오다가 5.16과 더불어 商工部長官이 임명하는 5명의 收拾對策要員들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再整備했지만 다시 波動, 1965년에는 또다시 大韓發明協會(會長 趙瓊奎)로 改稱이 뒤바뀌어 27年間 波亂의 歷程을 밟아오다가 1974年 5月 15日 運營難으로 해서 解散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大韓發明協會의 機能은 1973年 10月 18日에 이미 發足한 韓國特許協會(會長 朱耀翰)에서 引受繼承하여 오다가 다시 發明振興事業을 積極促進하고 發明의 企業化를 助長하며 工業所有權에 관한 制度發展과 產學協同의 實效를 提高함으로써 產業界의 技術革新을 통한 國民經濟成長에 寄與하고자 1982年 2月 15日에 韓國發明特許協會(會長 具滋暻)로 改稱하여 本格的인 發明獎勵事業을 展開하기에 이르렀다.

不安定の 連續線을 걸어온 發明獎勵事業은 1947年 朝鮮發明獎勵會 理事長 吳禎洙씨 이래 1956年 韓國發明協會長 周利會, 1956年 金浩植, 1960年 周利會, 安亞州, 朴勝男, 1961年 李英雨, 1962年 朴基元, 1965年 大韓發明協會長 趙瓊奎, 1967年 金泰煥, 1969年 朴魯陽, 1971年 金義昌, 1972年 潘明植, 1973年 申東寬, 1974年 韓國特許協會長 朱趙翰, 1979年 具滋暻, 1982年 韓國發明特許協會長 具滋暻의 順으로 變遷을 體體해 왔다.

## 2. 發明獎勵政策의 當面課題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發明獎勵事業과 政策은 우리의 實情에서 傳統的이며 體系的인 것이었다 기보다 지극히 理念的이며 概念的인 形態를 벗어나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고 前提하고 싶다.

원래 發明保護를 위한 行政制度의 由來는 1908年 8月 12日 舊韓末 당시의 日本이 지배해 온 統監府의 韓國特許令 公布에 따르는 統監

府特許局에 이어 1910年 8月 22日 韓日合併以後 1945年 8月 15日 解放을 맞을 때까지 36年間 출곳 日本特許局을 상대로 하는 特許出願의 個別的인 發明意慾에 달기는 단계를 크게 넘지 못했으며 1946年 1月 22日 美軍政令 第44號로 잠시 存續되던 特許院(院長 李采鎬)의 잠정적인 發明保護制度, 1946年 10月 5日 美軍政令 91號로 실시된 特許法이 우리나라 最初의 特許制度가 마련됨에 따라 必須的으로 並行되어 나가야 할 發明獎勵施策이 서서히 試圖되어 왔으나 그 結果는 반드시 滿足스러웠다고는 評價할 수가 없었다.

政府는 世界最初의 測雨器가 發明(世宗實錄 29卷을 근거)되어 實用化되던 1442年 5月 19日을 널리 誇示하고 發明思想의 鼓吹를 위해 1957년부터 이날을 「發明의 날」로 制定하고 第16회에 이르던 1972年을 마지막으로 1974年 3月 20日에 「商工의 날」行事와 統合시켜 發明關係行事의 獨立性을 잃게 됨으로써 發明賞授與도 이날로 統合된 셈이다.

또한 發明考案으로 權利化하여 企業化를 助長하고 나아가서는 產業繁榮을 促進시키기 위해 1958年 3月 11日 發明保護法을 公布實施하였다.

이 발명보호법이 지닌 効力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고 外國에서는 類例가 없는 劃期的인 獎勵施策이었다.

優秀한 發明品으로 인정될 경우 特許는 事業開始日로부터 5年間, 實用新案은 3年間 營業稅, 所得稅, 物品稅를 免除받을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또한 國內發明品이 外國에서 生産되어 國內로 輸入되는 경우 關稅를 免除하는 등 金融과 資材의 支援까지도 優先的으로 감안되도록 마련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너무 廣範圍하게 適用되고 誤用되는 경향이 나타나자 國家稅收入에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모처럼의 發明保護法은 1966年 1月 1日 租稅減免規制法의 公布施行으로 遺憾스럽게도 그 機能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59年 2月 商工部 發明賞審査委員會를 마련하고 產業發展과 國民生活向上에 寄與하는

## ◎發明環境의 再照明.....

發明을 獎與할 發明賞制度를 規定化하였고 1962年 3月 22日에는 特許補償審議會를 設게 했으며 1964年 5月 8日에는 工業所有權審議委員會를 구성하는 一聯의 發明獎勵事業을 施策化하기에 이르렀다.

이밖에도 政府는 보다 實質的이며 具體的인 發明을 獎勵하는 「職務發明補償制度」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科學技術處는 科學技術의 風土造成을 爲해 1968~1972年 사이에 126件에 對해 7,745萬圓의 發明, 實用新案試作補助金을 支給, 發明獎勵에 盡力했다.

또한 全國의 科學化運動사업의 일환으로 政府는 企業體의 研究開發活動을 자극하기 爲해 1972年 12月 28日 技術開發促進法을 制定公布하여 技術開發과 發明獎勵를 積極化해 왔다.

發明獎勵는 반드시 發明家들을 「타겟」로 삼는 것은 아니다. 원래 發明獎勵의 本質的인 性格은 國民들의 生活속의 科學化意識을 높이고 보다 合理的이며 改善된 工業的 生産을 爲한 新技術開發(頭腦資源開發), 나아가서는 競爭的인 産業發展에 寄與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初中高生과 大學生은 물론 家庭主婦에서 農村과 都市의 住民들과 敎職者와 研究職에 이르기까지, 職의 從業員들과 企業家들에 이르기까지 廣範한 領域에서 發明의 緊要性을 認識하는 風土造成의 필요성을 느낀다.

물론 終局의 목적은 보다 우수한 발명을 續出시키자는데 있지만 발명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의 職業을 形成할 수 없는 것이며 着想에서 發明, 特許, 企業에 이르는 過程에서 보다 合理的이고 구체적이면서도 보다 暫新한 기술적인 思想내지는 構造가 요청되는 까닭에 虛構性이나 低質的인 內容의 것은 産業的 客觀性에서 容認될 수 없는 것이다.

發明의 길을 追求하는 때는 반드시 理論的根據와 크고 작은 內容을 불문하고 經濟性이 충실하게 考慮되지 않고서는 成果를 거둘 수 없을만큼 冷酷한 것이다.

발명가들을 啓蒙指導하는 때는 반드시 이러한 點을 고려하지 못하고 概念的인 獎勵方法만으로서는 邪道를 걷고있는 發明家들을 救濟할 수 없다.

發明獎勵施策에는 크게 둘로 나누어 推進해야 할 것으로 보며 그 하나는 현재의 內國 個人特許出願이 30~40%에 지나지 않는 登錄件數에 對한 原因分析에서 나타나는 虛實要素를 可及的 除去하기 爲한 損失의 事前防止策으로서 發明讓渡나 特許情報活用技法 즉 發明家가 지녀야 할 精神的 技術的 姿勢를 갖추게 하는 하나의 코스인 訓練施策이 切實하다.

다른 하나는 特許權의 企業化率을 原因別로 分析하고 이에 對한 實施化의 擴大策을 檢討하여 發明意慾을 鼓吹하는 施策을 펼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基本事業을 推進함에 있어서는 多樣하고 具體的인 方法과 計劃을 세워야 하며 特許權을 獲得하는 過程과 保護하는 環境들을 根源的으로 改善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에는 ① 特許制度의 올바른 인식과 活用, ② 貴重한 아이디어에서 우리나라는 發明을 代理하거나 審査하는 사람들에 對한 不信風潮, ③ 特許權實施에 對한 補償이 正當하게 評價되어야 하는 등 이것들이 바로 잡혀나아가야 할 當面問題들이다. 우리가 持續的인 發明獎勵支援事業을 立體的이고 積極的으로 展開함으로써 解消될 수 있다고 確信하고 싶다.

아무튼 이러한 當面課題들을 풀어나갈 本質的인 發明獎勵機構와 體制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多幸히 지난 1977年 3月에 特許行政을 管掌하는 特許廳의 새로운 發足を 보게 되었고 民間機構로서 지난 2月에 發明特許協會가 새로이 出帆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發明風土의 造成, 發明家의 支援事業을 적극 펴나갈 수 있도록 發明의 날을 올해부터 復活하여 5月 19日에 大的인 行事로서 發明人을 褒賞하고 最大의 發明品展示會도 9月에 開催하며 發明品의 試作補助, 外國出願補助 等 關聯事業을 支援한다고 하니 發明人의 한 사람으로 期待되며 흐뭇한 마음 禁할 길이 없다.